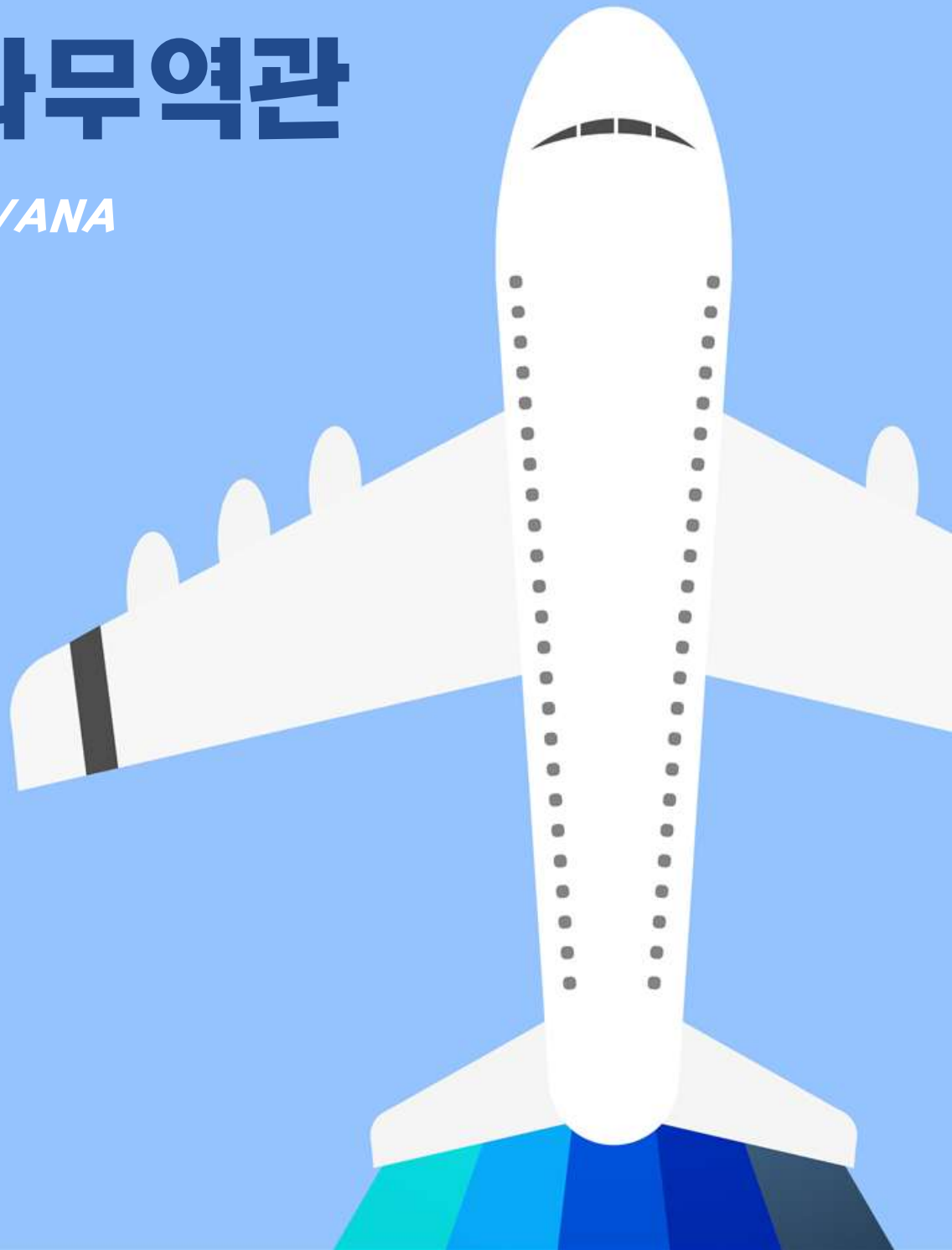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쿠바 아바나무역관

KOTRA HAVAN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국가개요	1
II. 주요 경제지표	2
III. 한-쿠바 관계	3
IV. 최근 동향	4
V. 쿠바 경제·교역 동향	8
VI. 상관습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	14
VII. 체류정보	16

I. 국가개요

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공화국(República de Cuba) - 수도 : Ciudad de la Habana - 15개 주(Provincia) 및 1개 특구(Municipio Especial)로 구성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서 국가 ○ 서쪽 : 멕시코, 북쪽 : 미국 플로리다, 동쪽 : 아이티
면적	○ 110,860 km ² (한반도의 1/2)
기후	○ 아열대 기후 : 12월~2월: 18°C~27°C 3월~11월: 24°C~32°C
수도	○ 아바나 : 스페인어 Ciudad de la Habana, 영어 Havana
인구	○ 1,124만 명('16년 인구주택총조사)
주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바나(La Habana) : 수도. 정치 및 경제 중심지 ○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 쿠바 동부 제2의 도시 ○ 바라데로(Varadero) : 중부 마탄사스주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
인종	○ 물라토(흑인과 백인 혼혈) 51%, 백인 37%, 흑인 11%, 동양계 1%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카톨릭 및 아프리카 종교 등 다수
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시각보다 14시간 늦음(한국의 정오는 전날밤 10시) ○ 4월부터 10월경까지 일광절약시간제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
독립일	○ 1898.12.10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 공화제, 국가평의회(Consejo del Estado)에 권력 집중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스 카넬(Miguel Diaz-Canel) 대통령 - 취임일 : 2018년 4월 19일(임기 : 5년)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스 카넬 대통령(각료회의 의장, 쿠바군 최고사령관, 쿠바 공산당 제1서기직)이 국가 통수권자이며, 2018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 2019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및 총리직을 신설, 마누엘 마레로 총리가 내치를 담당

II. 주요 경제지표

GDP	○ U\$1,073('20년), U\$155억('21년), U\$208억('22년)
실질경제성장률	○ -10.9('20년), 0.1('21년), 3.2('22년)
1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	○ 1인당 GDP : US\$ 14,028 ('22년) * 무상 제공되는 공공의료 및 교육을 포함, 구매력평가에 의해 산출된 1인당 GDP
실업률	○ 2.3%('20년), 3.7('21년), 3.9('22년)
물가상승률	○ 9.5%('20년), 255.2%('21년), 28.0%('22년) *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화폐단위	○ 쿠바페소(CUP) : 2021년부터 쿠바 내 유일 화폐로 사용 * 1994년부터 통용되던 태환페소(CUC)는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USD 1 = CUC 1 = CUP 24)
환율	○ USD : CUP = 1:24 * '22년 6월 기준, 쿠바 내 환전소/은행에서 달러 인출 및 매입은 불가하며, 매도만 가능
외채	○ U\$ 292억('20년), U\$ 292억('21년), U\$ 290억('22년)
외환보유고	○ U\$ 82억('20년), U\$ 72억('21년), U\$ 65억('22년)
산업구조	○ 공공보건(22.6%), 상업(16.5%), 제조업(11.2%), 건설업(10.1%), 운수/물류(6.8%), 숙박/요식(3.7%), 농수산업(2.8%), 에너지(1.3%), 광업(0.4%)
교역규모	○ 2020년: 수출 U\$ 17.8억, 수입 U\$ 72.5억 ○ 2021년: 수출 U\$ 16.1억, 수입 U\$ 90.0억 ○ 2022년: 수출 U\$ 18.3억, 수입 U\$ 98.2억
교역품	○ 수출 : 석유, 니켈, 담배, 약품, 설탕, 커피, 럼주 ○ 수입 : 공산품 대부분, 기계, 원유, 식료품, 화학제품

주: 2022년 추정치 / 자료: EIU, IHS, ONEI, KITA(이상 2022년 6월 기준)

Ⅲ. 한-쿠바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교국으로 체결 협정 없음 - KOTRA 아바나무역관 및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등을 통해 교류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 대 쿠바 수출 U\$ 4,217만, 대 쿠바 수입 U\$ 455만 ○ 2020년 : 대 쿠바 수출 U\$ 2,111만, 대 쿠바 수입 U\$ 970만 ○ 2021년 : 대 쿠바 수출 U\$ 2,239만, 대 쿠바 수입 U\$ 396만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쿠바 수출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타이어, 의약품, 용접기, 산업기계 등 ○ 대 쿠바 수입 : 연초, 스크랩, 주류(럼), 시가, 커피, 설탕, 식물성 유지 등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세코(여행업) 1개사 지사 운영중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중단 중 * 현대종합상사(발전업 등) 지사 폐쇄('20년 12월)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약 1천여명, 한국 정체성 사실상 소멸 상태 ○ 최근 10년 이내 쿠바에 상주하기 시작한 한국 국적자는 40명 내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정치적 미수교 상태이나, KOTRA 2005년 9월부터 무역관을 공식 개설하여 양국간 경험증진 활동 중 ○ 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기준 한국의 對쿠바 수출액은 U\$ 22백만으로 감소, 수입액은 U\$ 3.9백만 수준

IV. 최근 동향

1. 美 바이든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 변화

□ 취임 1년 4개월 만의 제재 완화

-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對쿠바 제재의 부분적 완화
 - 바이든 美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을 ‘납고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평가하며, 對쿠바 제재 조치가 미국의 對중남미 관계에 ‘비효율적인 걸림돌’로 작용함을 언급
 -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가 의도와는 달리 쿠바 사회주의 정권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의 對쿠바 제재를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임을 발표
 - 취임 이후, 코로나19 확산 예방, 對중국 외교, 對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 對쿠바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났으나, '21년 7월 쿠바 전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쿠바 정부의 폭력진압 이후, 동 정책에 대한 검토 지시
 - 쿠바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미국의 對중남미 정책 변화 및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를, 특히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경제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망 필요

<바이든 정권의 對쿠바 제재 완화 주요 내용>

- 송금 제한 상한액 폐지(현재: 가족당 분기별 1천 달러 이내 허용)
- 쿠바 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비 가족 송금 허용
 -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 및 개인에게의 자금 흐름 예방 및 감시 조치 유지
-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아바라를 제외한 지방 도시 비행 금지 철회
- 미국 내 구금된 쿠바인들의 가족 상봉을 위한 가석방 프로그램 재개
- 미국인 단체 관광 및 견학 등의 방문 요건 완화
 - 개인의 쿠바 여행 제한 조치(개인 간 교류 목적)는 유지
- 쿠바 내 인터넷 환경 개선
- 주쿠바 미국대사관 영사 인력 증원 및 비자 발급 재개 (연 2만 건 목표)

< 오바마 정권의 대쿠바 제재 완화 주요내용 >

- 對쿠바 수출가능품목 확대
 - IT 및 통신기기 : 소비자 통신기기, SW, HW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 쿠바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쿠바 정부기관에 제품 수출 허가(Case별 승인)
- 對쿠바 수출금융 지원
 - 미국 금융기관이 對쿠바 수출 시 파이낸싱 제공 가능(보험, 보증, L/C)
- 쿠바 민간부문 생산제품 수입 허가
 - 쿠바 사업자가 국영기업이 아니라는 증명 필요 (자영업자 면허증 등)
- 미국기업·단체의 쿠바진출 허용
 - 수출 허가받은 기업·통신·운송·우편·배송업체·여행사 등의 물리적 주재 허용
- 미금융기관의 쿠바 관련 달러 거래 허용
 - 해외 금융기관 간 쿠바 관련 자금 송금 처리 가능(유턴 거래)
 - 쿠바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에 제시한 달러 화폐 수단 처리 가능
- 송금/여행/운송 규제 완화
 - 가족송금, 기부성 송금 한도액 철폐
 - 여행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 개설, 카드 사용 가능
 - 미-쿠바 간 정기 항공노선 운행, 해상운송 가능

< 트럼프 정권의 對쿠바 제재 강화 조치 주요내용 >

- 헬름스-버튼 법
 - 쿠바혁명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계 미국인들이 혁명정부에 몰수당한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여행제한
 - 미국인들의 '개인 간 교류' 목적의 쿠바 여행을 금지, 예외적으로 비즈니스, 학술연수, 교육 등의 기존 여행은 허가
- 송금 제한
 - 쿠바 내 친인척 대상 송금 한도(US\$ 1천/월) 및 횟수(최대 3개월 연속) 제한, 對쿠바 송금 시 유턴 거래 금지
- 미국발 크루즈선 입항 금지
 - 미국 출발 크루즈선, 레저선박의 쿠바 입항 금지, 개인 및 기업용 항공기의 쿠바 운항 중지 단, 상업용 항공편은 아바나 노선만 유지

2. 만성적 외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경제난 심화

□ 만성적 외환, 물자 부족 현상 심화

- 코로나19, 美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외환부족 현상 가속화
 - 쿠바는 취약한 제조업에 기인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서비스 수지로 상쇄하는 경제구조를 보유 ('21년: 무역수지 △U\$74억, 서비스수지 U\$75억)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광산업 급감, 미국의 제재 강화에 따른 전문인력 해외파견 축소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지(및 외화유입) 감소
 - 외화유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21년 1월, 기존의 이중화폐제도를 폐지, 당시까지 특혜적 환율을 적용받던 생필품 수입 공기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강력한 가격동결 정책에도 불구, 가파른 물가상승을 초래
 - 쿠바정부는 '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자국 내 금융기관 및 환전소에서 외화 인출 및 환전 등의 외환거래를 중단 중
- 지속되는 외환부족 현상으로 인한 물자 및 에너지 부족 현상 심화
 - 부족한 외화 유입을 위해 쿠바정부가 신설한 외국환 매장으로 주요 생필품 공급이 집중되며, 실질적인 달러화 경제권과 폐소화 경제권으로 양분
 - 재정부담으로 인해 기초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및 정부 배급품목의 축소를 추진함에 따라, 외화 수입원이 전무한 일반 국민은 심각한 물자 부족 체감
 - 또한, '00년 베네수엘라와의 협약에 따라, 쿠바 의료진 파견 대가로 하루 5.3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았으나, 미 제재로 인한 원유공급 축소 상황 발생

□ 외환 수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생필품 제조기업을 위한 '보조환율제' 도입
 - '22년 5월, 쿠바정부는 자국 내 제품 생산 및 폐소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 외화 배정 예고
 - 기업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제품 생산량, 판매가격 및 물량에 대해 사전 합의해야 하며, 정부는 공식환율과 시장(비공식)환율의 중간가격 수준인 '보조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할당 예정
 - 해당 정책이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국 비효율성 증가 및 비공식부문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3.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새로운 경제 주체로써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쿠바정부는 '21년 8월, 제한된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기존 자영업 형태에서 진일보한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
 -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하되, 일부 비주요 분야에 한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허용
 - 중소기업은 '국영', '민간' 또는 '혼합'의 형태를 띌 수 있으며 최대 100명까지 고용 가능
 - 보건, 통신, 에너지, 국방, 언론 등의 분야 및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통번역가 등 현재 프리랜서 허용업종 진출 불가

- 식품생산, 지역개발, 기술기반 사업, 수출, 수입대체 등 정부 전략육성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립허가를 발급할 것이라 발표
 - 한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존 자영업 업종(요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의 변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수출입업의 경우, 기업이 직접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정부 산하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만 가능

- 금번 중소기업법이 중장기적으로 쿠바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하의 지나친 규제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상당 부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 쿠바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및 국가 경제 기여를 기대
 - 외국자본 유입 제한, 부의 집중, 빈부격차 확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조정 및 규제 강화 등을 통한 개입이 가능한 점, 기업의 직접 수출입 절차 진행 불가 등은 한계로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영업자들이 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받게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점, 추후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른 관련 법의 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험적 성격의 자본주의가 도입된 점은 의미가 있음

V. 쿠바 경제·교역 동향

□ 쿠바경제 개황

- '89년 사회주의권 붕괴로 구소련 경제 및 군사원조 중단 경험
 - 당시 전체 교역량의 80% 이상 구소련 블록 의존
- '92년 미국의 '쿠바 민주화법' 제정으로 시작된 對쿠바 금수조치 강화로 쿠바는 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 이후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입, 외국인투자 개방
 - '93년 독립채산제 실시, 사적이익 용인, 농산물 자유시장 허용
 - '95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투자 부문 개방 확대
- '96년 미국의 '쿠바민주화 강화법안(헬름스 버튼 법)' 제정 및 '04년 추가 제재조치가 발효, 對쿠바 투자비용 상승 및 외환보유 상황 악화
- '09년 미국의 對쿠바 제재 일부 완화, 오바마 정부의 對쿠바 관계 개선 추진
- '14년 양국간 관계 정상화 선언, '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제제재 완화
- '11년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시 향후 경제운영 기본지침인 '리네아미엔토' 발표 이후로 자영업 업종 확대, 중고차 및 개인주택 매매, 세제개편, 마리엘특구 개발법 제정 등 경제개혁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 강화,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서비스, 무역수지 악화, 외환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입대금 미지급 및 디폴트 발생
- '19.2월 개헌, '21.8월 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시각에서 진일보. 단,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에는 어려움
- '21.1월, 시장원리를 왜곡하던 이중화폐제도를 27년만에 폐지하였으나, 심각한 물가상승 및 물자부족 현상 초래
- '21.8월, 중소기업법 제정을 통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진

□ 경제 성장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모멘텀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 활기가 살아나며 '15년에는 4%의 성장률을 기록
 - 이후 최대교역국인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니켈 등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하락,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경제성장 위축세가 지속
 -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으면서 '19년(-0.2%) 및 '20년(-10.9%)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04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베네수엘라 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관계 강화, 양국의 금융지원, 對베네수엘라 의료 및 교육서비스 수출 등이 관광산업과 함께 쿠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 국제 경제전문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美제재 완화, 서유럽 관광객 증가 등이 예상되는 '22년 이후부터 쿠바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의 부활과 함께 쿠바경제가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쿠바 경제 성장률 >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	%	2.2	-0.2	-10.9	0.1	3.2
GDP	US\$억	1,000	1,034	1,073	155	208

자료원 : EIU(2022년 추정치)

□ 인플레이션

- 쿠바의 '94년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2중 화폐제도를 도입. 미 달러에 고정된 태환페소(CUC)와 불태환페소(CUP)의 2중 구조로 운영
 - 태환페소(CUC)는 대부분의 공산품 구입 등에 사용되며, 불태환페소(CUP)는 농산물, 정부보조 생필품 등의 제한된 범위내 사용
- '21년 1월, 이중화폐제도의 폐지 및 단일 환율제도 운영 방침을 발표
 - 일반 공식환율 (CUC1 : CUP24)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 공기업, 생필품 수입기업 등에 대해서는 1(미달러):1(불태환페소)의 환율을 적용

- 이에, 정부산하 공기업의 재무재표상에는 태환페소와 불태환페소의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왜곡현상 발생 및 재무건전성 훼손
- 이중화폐제도를 운영하며 외환수입 확대 및 수입물가 안정화 등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근본적인 경제왜곡 현상이 발생
- 불태환페소(CUP)가 쿠바 내 유일화폐로 통용되며, 미 달러 대비 단일 고정환율(1:24)제도 운영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외환수입 급감, 쿠바의 고질적 채무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필품 수입이 위축되어 쌀, 우유 등의 생필품 가격이 급등
- 불태환페소(CUP)로 저가 공급되는 배급 생필품의 수량 및 종류는 매년 감소하고 미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한 외환상점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쿠바경제의 달러화 진행
 - 공식급여(불태환페소) 및 실질 생활비(미달러) 차액을 보완하기 위한 지하경제 활성화
- 현재 쿠바의 정부배급은 최저생계의 1/5 수준으로, 쿠바 비공식부문의 규모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방대, 쿠바정부의 통제경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쿠바 물가상승률 >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물가상승률	%	6.9	5.6	9.5	255.2	28.0

자료원 : EIU(2022년 추정치)

□ 쿠바 수출입 동향

- 매년 70억~8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의 흑자를 통해 보전하는 경제구조를 유지
 - 팬데믹 이전의 경우, 관광수입(연 35억 달러 내외), 재외동포송금액(연 30억 달러 내외), 의료서비스 수출(연 60억~80억 달러) 등을 통해 보전
 - 미 제재 및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2021년 서비스 수지는 7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무역수지 74억 달러 적자), 예년 대비 약 30% 감소
- * '21년 관광수입(6.7억 달러), 의료서비스 수출(40억 달러) 등

-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47.9%), 니켈(16.4%), 의약품(14.0%), 설탕(8%), 담배(4.7%) 등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43%), 식품(16%), 화학제품(11%), 기계(4%) 등
- 교역 대상국
 - 의료서비스 수출, 원유 수입 등으로 인해 쿠바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베네수엘라는 '20년 자국 경제위기 및 미 제재로 對쿠바 교역이 감소하며 2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 중국은 '16년 및 '20년, 최대교역국 자리매김하였으며, 버스, 차량, 가전제품, 농기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쿠바로부터 니켈, 설탕을 대량 수입
 - *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20년 다시 최대 교역국 지위를 회복, 최근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쿠바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 중
 - 아시아에서는 중국(1위), 베트남(13위), 인도(19위), 한국(24위) 순으로 교역

□ 한-쿠바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對쿠바 수출액은 미-쿠바 관계가 개선된 직후인 '17년,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對쿠바 제재 강화, 쿠바정부의 수입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지속 감소 중이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0년 이후 2천만 달러 수준을 기록
 - '06년~'08년 기간 중 발전기(현대중공업) 및 에어컨·냉장고(LG전자) 등의 대형 수출로 연간 최고치인 2억~3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화물차 등이 주요 수출품목임
- 對쿠바 수입은 담배류, 금속 스크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쿠바 수출입 >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쿠바 수출	천 US\$	70,780	59,158	42,167	21,111	22,396
대쿠바 수입		2,964	6,648	4,549	9,700	3,969
무역수지		67,816	52,510	37,618	11,411	18,427

자료원 : KITA

○ 對쿠바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현대 및 기아자동차는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대쿠바 수출 (현대: Susanville, 기아: Finauto)
- 자동차의 경우, 쿠바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수입물량이 결정되며(렌트카 중심), 최근 쿠바-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감소되었으나, '17년부터 회복세를 기록하며 '21년 기준 현대자동차는 쿠바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 디젤 발전기 부품 : '05년~'07년 기간 중 현대중공업이 총 644대의 디젤 발전지를 수주(8억 달러 규모). 납품 종료 후 현재 연간 2천~3천만 달러 규모의 A/S 부품 수출 중
 - * 수출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18년 하반기부터 수출 중단
- 가전제품 : 삼성, LG, 대우 등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수출 중이며, 삼성 및 LG의 경우 각각 플래그십 스토어 및 A/S 센터 운영 중
- 타이어 :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수출

○ 對쿠바 주요 수입품목

- 사탕수수원료(fatty alcohol), 시가*, 럼주**, 커피*** 등 소량 수입
 - * 홍콩 Pacific Cigar를 통해 국내 공급
 - ** 쿠바 대표 브랜드인 Havana Club을 프랑스계 에이전트사인 Pernod Richard가 유통
 - *** Crystal Mountain이라는 프리미엄 커피 소규모 수입,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물량부족으로 소량 수입에 그침. 최근 Cohiba, Montecristo 브랜드의 커피가 국내에서 소량 유통 중

< 우리나라의 對쿠바 주요 수출품목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1,111	-49.9	22,396	6.1
1	7411	승용차	3,080	-4.1	11,461	272.1
2	6152	철구조물	0	0.0	2,962	0.0
3	7111	원동기	1,129	55.5	2,186	93.7
4	7420	자동차부품	1,908	-44.4	2,102	10.2
5	7412	화물자동차	82	-95.6	1,047	1,176.3
6	3203	타이어	427	55.3	609	42.6
7	2262	의약품	539	-9.3	320	-40.6
8	9110	서적	46	-77.9	261	462.3
9	7262	용접기	0	0.0	195	0.0
10	7515	전동축및기어	0	-99.3	165	1,837,811.1

자료원 : KITA

< 우리나라의 對쿠바 주요 수입품목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9,700	113.2	3,969	-59.1
1	6221	동괴및스크랩	0	-100.0	1,176	0.0
2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904	-13.1	995	-47.8
3	0154	연초류	1,658	-1.3	912	-45.0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7	-68.5	389	956.1
5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48	148.2	295	509.8
6	0157	주류	6,004	11,255.0	59	-99.0
7	9220	조각품	0	0.0	56	0.0
8	0131	식물성유지	0	0.0	34	0.0
9	0151	커피류	48	551.2	30	-36.7
10	0319	기타목재류	0	0.0	9	0.0

자료원 : KITA

VI. 상관습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

□ 상관습 및 유의사항

- (사회주의) 강력한 공권력 및 주민감시망 보유, 기본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의 활동은 감시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 체재 비교 등의 불필요한 언급 자제 필요
 - * 국제전화 및 이메일 유의
- (독과점 수입) 쿠바는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수입, 정부 부처별로 공기업들이 분야별 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개상을 통하더라도 실질적인 바이어는 쿠바 정부임
- (평판관리) 정부 내 내부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특정 기업과의 업무내용이 정부 내 전 부처 및 관련기관에 공지되기 때문에 업무상 실수 또는 약속 미이행 등의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이 급속히 쿠바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관료주의) 쿠바 바이어는 월 US\$ 50~9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 관료주의가 심하고, 거래선 변경이나 신제품 수입에 소극적임.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현지인맥 관리는 필수적
- (지속적 관계유지) 쿠바기업과 거래관계가 구축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처의 핵심인사를 방한초청하고 기술교육,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 제공 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
- (대금지연) 수입대금 지불시 개인자금이 아닌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는 관계로, 외환수급 상황이 악화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급하지 못함을 떳떳하게 밝힘. 대금 미지급의 경우는 드물지만, 외환수급에 따른 대금지연은 주기적으로 발생
 - * 120일~720일까지의 외상수입이 일반적이며, '18년 하반기부터 수입대금 미지급중
- (선불거래) 쿠바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문제로 외국기업이 쿠바산 제품을 수입시 기본적으로 100% 선금지급을 요구
- (통신환경 취약) 열악한 통신환경으로 공용 이메일 사용시 수신용량이 제한되어있어 파일 첨부시에는 반드시 1Mb 이하의 문서로 할 것

- (시간관리) 약속된 면담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러나 쿠바 기업이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일상적이므로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말 것
- (가벼운 대화) 비즈니스 시작 전 5분에서 15분 간의 가벼운 담소 후 면담 시작. 형식 및 절차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면담의 목적 및 주제, 참석자 소개,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면담 진행

□ 비즈니스 옷차림

- 비즈니스 옷차림은 상당히 비공식적인 편으로, 남자는 상황에 따라 셔츠와 슬렉스로 포멀하게 연출, 더운 기후에 맞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충분. 정부 공식행사 등에는 Guayabera(우리나라 모시옷과 비슷한 셔츠)를 착용할 수 있음. 여성의 경우 깔끔한 셔츠와 바지가 일반적이며, 스커트도 가능함

□ 인사법

- 비즈니스상 대면 시 악수나 포옹이 일반적이며, 구면이거나 친한 사이일 경우 볼을 마주 대는 인사도 가능함

VII. 체류정보

1. 일반사항

□ 입출국 유의사항

- 한국 내 쿠바대사관이 없으므로 쿠바 입국 전 출발지 또는 경유지에서 미리 비자를 구입해야 함
 - 관광비자(Tourist Card)는 국내 여행사 또는 아바나 입국 직전 공항에서 구입 가능하며, 구입지에 따라 1인당 US\$25~US\$100 수준
 - * 미국 경유시, 반드시 미국내에서 구입한 Tourist Card(분홍색)를 구비해야함
- 아바나 공항 입국 심사시 여권과 관광비자(Tourist Card)를 제시해야하며 입국시 날인된 관광비자는 출국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함
 - 관광비자는 기본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두 번까지 연장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 비즈니스 면담, 기관 방문을 위해서는 상용비자(D7)를 발급받아야 하며, 방문기관을 통해 사전 신청하되, 약 30일 가량이 소요됨.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 시 비즈니스 면담 및 기관방문은 불가함

< 쿠바 관광비자(Tourist Card) >



- 입국 시 간혹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보유자일 경우 입국 심사대 옆 창구에서 구입 가능
- 입국심사가 끝나면 휴대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해야 함

- 수화물 수취대에서 부친 짐을 찾은 후 입국장으로 나갈 때 세관원에게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원은 수화물 태그를 일일이 확인함
 - 수화물 태그에 검사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음식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
 - 근거리 무선통신장비(워키토키 등), 드론, 프로젝터 등은 반입이 불가
- '22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 및 세관 사전신고가 가능함
 - <https://www.dviajeros.mitrans.gob.cu/inicio> (스페인어/영어)

□ 신변안전 및 치안

- 시내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있어 대로변은 치안에 문제가 없으나, 관광객이 많은 구시가지(Old Havana) 등은 주간에도 소매치기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 해안도로 (Malecon, 말레콘) 야간 보행 시 생계형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 필요
- 단신으로 여행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캣콜링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거부의사를 단호히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

□ 사용화폐 및 환전

- 미 달러, 유로 등의 외화의 현찰 통용이 되지 않으며, 기존 이중화폐제도 하의 태환페소(CUC)도 2021년 12월 이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
 - 기본 화폐단위인 불태환 페소(Peso, MN, CUP)는 미 달러의 가치에 고정되어있으며(USD 1 = CUP 24), 환전 및 현금인출 시 3%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됨
 - 미 달러, 유로 화폐의 현찰 통용은 불가하나, 미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공항, 외국환 상점 및 호텔 등에서는 전신환 거래 형태(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거래가 가능
 - 현재 사용되지 않는 태환페소(CUC)의 경우 구조물, 불태환페소(CUP)의 경우 위인의 초상화가 지폐 도면에 그려져 있어 구분이 가능

< CUC 및 CUP 비교 >

명칭 표기	Peso Convertible / CUC / 쿡 / 세우세	Peso / MN / CUP / 모네다 나시오날 / 세우빠
앞면		
뒷면		
동전		

□ 신용/직불카드 사용

- 공항, 외국환 상점, 호텔 및 외국인 전용병원 등에서만 사용 가능
- VISA, Mastercard 사용 가능하나, Citibank 등 미국계 은행 발행 카드 및 American Express는 사용 불가
- 국내은행 발행 직불카드로 ATM을 통해 CUP 인출 가능하며 3%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USD→CUP의 이중환전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 단, 은행별, 카드별 출금 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출국전 확인 및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만약을 대비, 복수의 카드 지참을 권유

□ 통신

- 쿠바 내 전화, 인터넷 관련 모든 사항은 국영통신회사(ETECSA)에서 관리
- 외국인도 여권 지참시 현지 USIM 구입 가능
- 통신사에 따라 쿠바 내 국제로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로밍 가능여부는 통신사에 사전에 확인 필요

< 현지전화 이용 방법 >

국가번호 : +53	쿠바 국내전화(유선)	지역번호 + 전화번호
	쿠바 국내전화(무선)	핸드폰 번호만 입력 (5로 시작)
	국제전화	00+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민간주택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정부주택의 경우에도 비싼 이용료로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드문 편임
- ETECSA 사무실 및 호텔, 공공 와이파이 존에서 인터넷 선불카드 구입 및 이용 가능 (1시간 사용가능 카드 = CUP 24~72)
 - 인터넷 선불카드의 비밀번호란을 벗겨내고 인터넷 접속시 화면에 팝업되는 로그인 창에 카드에 적힌 로그인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 접속
 - 최근 일부 호텔에서는 인터넷 선불카드 외에 종이로 봉합된 인터넷 비밀번호를 제공

< 인터넷 선불카드 >



- 우체국 (Correo de Cuba)에서 한국으로의 국제우편과 엽서 발송이 가능

□ 생활정보

- 전압은 110v 및 220v가 혼용되어있으며, 변환 플러그 지참 필수
- 건기(11월~4월)와 우기(5월~10월)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대로, 여름(6월~9월)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이를 정도로 더운편이며, 겨울(12월~2월)의 낮 평균기온은 25도, 밤 평균기온은 15도 수준임
- 지리적 특성상 습도가 높아 통풍이 잘되는 옷이나 여벌의 옷을 충분히 준비

- 9월~10월 사이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므로 출장 계획시 참고
- 식수는 반드시 슈퍼마켓 또는 주유소에서 생수를 구입
- 외국인 관광객은 통상적으로 10% 수준의 팁을 지급하며, 일부 식당의 경우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어있음
- 대중교통이 매우 취약한 편으로, 외국인의 경우 시내 이동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는 정부택시(노란색 세단 또는 Van)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잦은 편임. 운임은 흥정 가능하나 대략적인 시세를 모르거나 스페인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과다요금 징수가 잦음
- 관공서는 주로 토, 일요일 휴무이며 정부관리 문화재는 주로 월요일 휴무
- 아바나의 여행사, CADECA 등 관광 관련 사무실은 대부분 무휴, 지방은 일요일 휴무가 일반적
- 주요 공휴일 (2022년)

일자	내용	일자	내용
1.1	해방 기념일	7.26	혁명 기념일
1.2	승리 기념일	7.27	몽카다 병영 습격 기념일
4.15	성 금요일	10.10	독립 기념일
5.1	노동절	12.25	성탄절
5.2	노동절 대체휴일	12.31	선달그믐
7.25	몽카다 병영 습격 기념일		

- 쿠바는 공관 부재지역으로, 여권 분실시 KOTRA 아바나무역관으로 연락하여 도움 요청
 - 무역관은 관할공관인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과 협조하여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하나, 발급시까지 최소 10일~15일 가량이 소요됨
- 비상연락망

연락처	내용	연락처	내용
104	응급차	105	화재신고
106	경찰	834-4446/7	쿠바나 항공

2. 주요 관광지

01. 혁명 광장 & 호세 마르티 기념탑 (Plaza de Revolucion)

- 소개**
- 주요 국경일에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리는 쿠바의 대표적 광장
 - 바로 옆 내무부 건물 벽에 혁명영웅 '체 게바라'의 철제얼굴 모습이 있음.
 - 아바나의 랜드마크인 호세 마르티 기념탑에는 쿠바의 독립전쟁 영웅 호세 마르티 관련 자료가 전시됨.



주소 Calle Paseo y Ave. Independencia. Plaza de la Revolucion. La Habana, Avenida Paseo, La Habana

운영시간	상시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광장 #랜드마크 #인기관광지
홈페이지	없음			

02. 까삐톨리오 (El Capitolio)

- 소개**
- 1929년 당시 대통령인 마차도의 사업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을 본따 더 큰 규모로 만들었던 국회의 사당
 - 이후 쿠바정부의 과학기술부 건물로 사용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보수공사 중으로 외벽 펜스만 철거한 상태
 - 92m 달하는 높이와 규모있는 돔 형태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담당



주소 Paseo de Marti, Havana 10200, Cuba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랜드마크 #국회의사당 #인기관광지
홈페이지	없음			

03. 헤밍웨이 박물관 (Museo Memorial Ernest Hemmingway)

- 소개**
-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가 1940년부터 1960년까지 거주한 저택
 - 타자기, 동물박제, 9,000여 권의 장서가 보존되어 있음.



주소 Finca la Vigia, San Francisco de Paula, Carretera Central Km 12.5, La Habana

운영시간 월별로 상이
 - (1월-6월) 수-일 09:30-15:15
 - (7월-8월) 우천시 휴무
 - (9월-12월) 수-일 09:30-16:15

입장료 CUC 3
 - 가이드 포함 시 : CUC 4
 - 사진 촬영 포함 시 : CUC 5
 - 비디오 촬영 포함 시 : CUC 25

홈페이지 없음

무역관평가 중요도 ★★★★★
 키워드 #위인 #역사 #박물관

04. 알라시아 알론소 아바나 대극장 (Gran Teatro de la Habana Alicia Alonso)

- 소개**
- 센트로 아바나를 지나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
 - 1838년에 지었던 타콘 극장의 자리에 건축가 파울 벨라우가 1815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
 -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극장으로 2016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음.



주소 458 Paseo de Marti, La Habana 10600

운영시간 금-일 20:30-22: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랜드마크 #극장

홈페이지 <http://www.balletcuba.cult.cu/gran-teatro-de-la-habana/>

05. 산 프란시스코 수도원 (Iglesia de San Francisco de Asis)

소개

-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교회로 아바나 최고의 전 망대
- 1608년에 처음 지어졌다가 1739년에 재건. 1970년대 다시 지어짐(수도원 탑의 높이 46m)
- 아르마스 광장에서 오피시오스(Oficios) 거리를 따라 남쪽으로 세 블록 걸다 보면 산 프란시스코 광장이 있으며, 올드 아바나에서 가장 전망이 아름다운 광장으로 알려짐.



주 소 Oficios, La Habana

운영시간 09:00-18: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광장 #전망대

홈페이지 없음

06. 오비스포 거리 (Calle Obispo)

소개

- 올드 아바나의 여행자 거리 중 하나로 가장 변화한 인기 있는 곳
- 파세오 데 마르티에서 시작해 아르마스 광장까지 이어짐.
- 국영 환전소, 호텔 전화국, 관광 안내소,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이 있음.



주 소 Obispo, La Habana

운영시간 상시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변화가

홈페이지 없음

07. 혁명 박물관 (Museo de Revolucion)

소개

- 1959년 혁명 이전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 혁명관련 사진, 무기, 의류 등이 전시되어 있음.
- 1956년 혁명군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타고 왔던 소형 요트 그란마(Granma)를 볼 수 있음.



주소 Avenida Belgica, La Habana

운영시간 09:30-16: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없음

키워드 #박물관 #대통령 관저

홈페이지 없음

08. 럼 박물관 (Museo de Ron)

소개

- 쿠바의 국제적 럼 브랜드 'Havana Club'이 운영하는 박물관
- 사탕수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증류에 이르기까지 럼의 제조 과정을 상세히 보여줌.
- 럼을 제조하던 기구, 사탕수수를 운반하던 기차의 미니어처 등도 볼거리



주소 El Museo del Ron Havana Club Avenida del Puerto 262, esq. Sol, Habana Vieja Ciudad de La Habana

운영시간 월-목 09:30-16:00, 금-일 09:00-16:00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장료 CUC 7

키워드 #박물관 #이색체험

홈페이지 <https://havana-club.com/>

| 쿠바

09. 산호세 예술품 시장 (Almacenes de San Jose)

- 소 개**
- 1885년 지어진 항구 창고를 개조해 2009년 오픈 한 곳으로 쿠바 300여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판매
 - 쿠바의 그림, 조각품, 수공예품, 아프로-쿠반 타 악기, 악세서리 등 다양한 예술품과 기념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관광 명소



주 소 Avenida del Puerto corner of Calle Cuba, La Habana

운영시간 화-일 09:00-20:00(월요일 휴무)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쇼핑 #예술품
홈페이지 없음

10. 아르마스 광장 (Plaza de Armas)

- 소 개**
- 군대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이 광장은 1519년 스페인 군대의 훈련 장소로 건설됨.
 - 광장 주변으로 시립박물관, 아바나 최초의 사원 엘 템플레테와 거리 중고 책 가판대, 벵룩 시장 등 볼거리가 많음.



주 소 Calle Tacón e/ Obispo y O'Reilly

운영시간 상시 **무역관평가** **중요도** ★★★
입 장 료 없음 **키워드** #광장 #벵룩시장
홈페이지 없음

3. 식당 정보

번호	레스토랑	음식종류	주소	전화
1	La Scala	이태리식	3ra ave e/ 76 y 80. Melia Habana	7204-8500
2	Tien Tan Miramar	중식	3ra y 44, Miramar	7206-2543
3	Vistamar	인터내셔널	Ave 1ra y calle 22. Miramar.	7203-8328
4	La Cocina de Liliam	인터내셔널	Calle 48 e/ 13 y 15. Miramar	7209-6514
5	Corte de Principe	이태리식	Calle 9na esq. 74. Playa	5255-9091
6	Habana Mia 7	인터내셔널	Ave Paseo e/ 1ra y 3ra	7830-2287
7	El Biki	인터내셔널	Infanta e/ San Lazaro y Concordia	7870-6583
8	La Guarida	인터내셔널	Concordia e/ Gervasio y Escobar	7866-9047
9	Ivan Chef Justo	인터내셔널	Aguacate e/ Tejadillo y Chacon	7863-9697
10	Beirut Shawarma	중동식	Calle 1ra e/ Calle A y B	7831-5883

4. 무역관 오시는 방법

무역관 연락처

- 주소 : Ave. 3ra e/ 76 y 78, Edificio Santa Clara, Oficina 412, Miramar Trade Center, La Habana, Cuba
- 전화 : +53-7-204-1020 / 204-1117

공항에서 오시는 방법

- 공항내 환전소(Casa de Cambio / CADECA)에서 환전 후 택시 이용 (요금: USD 30~40)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